

일본 인류학의 한국 연구

시마 무쓰히코(嶋陸奥彦) _ 도호쿠(東北)대학 명예교수

...

이 글의 목적은 일본 인류학에서의 한국 연구와 관련하여 첫째, 1970년대 초기에 연구가 재개되었을 당시의 사정과 둘째, 도호쿠(東北) 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구 교육 기관의 발자취를 중심으로 특히 이와 관련된 연구자들의 계보에 주목하면서 정리해보는 데에 있다. 또한 본 기고문은 2014년 12월 6일 도호쿠대학에서 개최된 제1회 도호쿠 한일교류포럼에서의 보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

I . 선행연구사(前史) 일제식민통치기의 조선문화연구자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秋葉隆(아키바 다카시, 사회학, 1924년 부임)

赤松智城(아카마쓰 지조, 종교학, 1927년 부임)

鈴木榮太郎(스즈키 에타로, 사회학, 1942년 부임)

조선총독부 촉탁(朝鮮總督府囑託)

村山智順(무라야마 지준, 1919년 부임)

善生永助(젠쇼 에스케, 1923년 부임)

재야(在野)

今村鞆(이마무라 도모, 1908년 도한(渡韓))

위 연구자들은 일본에서의 한국문화연구를 회고함에 있어서 빠트릴 수 없는, 선구적인 역할을 해온 연구자들이다. 이들 중 경성제국대학의 3인은 모두 도쿄제국대학 출신으로 무속과 농촌사회를 다루었으며 현지 조사 방법을 통해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이후의 인류학적 한국 연구와 직결되는 인물들이다.

조선총독부의 촉탁을 받았던 무라야마 지준(도쿄제국대학 졸업, 사회학 전공)과 젠쇼 에스케(와세다대학 졸업, 정치경제학 전공)는 일제식민통치 하의 조선에 장기간 머물면서 여러 사회적 측면과 생활 관습에 대한 막대한 양의 보고서를 남겼다. 이들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당시의 일상적인 문화와 사회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라야마 지준은 니가타현(新潟縣)의 사찰 출신으로 조선총독부 촉탁에서 물러난 후에는 일본으로 돌아와 사찰에서 주지(住持) 일을 하면서도 한일 교류와 관련된 일을 계속하였다. 젠쇼 에스케는 2차대전 이후, 쇼와여자대학(昭和女子大學)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한편, 재야 연구자로 언급한 이마무라 도모의 경력을 보면, 1899년에 경시청 경부가 되었으며 경시청 재직 상태로 1904년에 호세이대학전문부(法政大學專門部) 법률과를 졸업하고 1908년에 충청북도 경찰부장으로 부임하게 된다. 1925년에 55세로 퇴직한 후에도 조선에 머물면서 조선사(朝鮮史) 편집회 촉탁과 인삼사(人蔘史) 편찬 촉탁직 등을 역임하였다. 경찰서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사회의 다양한 관습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이나 점차 민속학적인 관심이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민속학에 전념하는 학자가 되었

다. 1932년에 조선민속학회가 조직되었을 당시에는 장로급으로 참가하였다고 한다.

일제의 식민통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도쿄인류학회잡지(東京人類学会雑誌)’에 발표된 논고가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1884년 당시 도쿄대학의 학생이었던 쓰보이 쇼고로(坪井正五郎, 초대 인류학교수)가 친구들 몇 명과 만든 동호회적인 조직 ‘인류학의 벗(じんるいがくのとも)’은 2년 후인 1886년에 도쿄인류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이 학회는 1941년에 일본인류학회로 재편되었다). ‘도쿄인류학회 잡지’는 이 학회의 기관지로 창간부터 약 10년간 아래와 같은 논고를 게재하였다.

- 1889년 37호 오야 도오루(大矢透) ‘일본어와 조선어의 유사점
(「日本語ト朝鮮語トノ類似」)
- 1890년 48호 스즈키 겐타로(鈴木券太郎) ‘조선의 장승에 대하여’
(「朝鮮の人面を刻める木標につきて」)
- 1891년 65호 하시바 유스케(羽柴雄輔) ‘조선이정표에 대하여’
(「朝鮮里程標ニ就テ」)
- 1893년 87호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 ‘조선고대왕들의 난생 전설’
(「朝鮮古代諸王卵生の伝説」)
- 1895년 106호 오카쿠라 요시자부로(岡倉由三郎) ‘조선의 분묘’
(「朝鮮の墳墓」)
- 1896년 123호 도리이 류조(鳥居龍蔵) ‘고려종족의 문양’
(「高麗種族の紋様」)

Ⅱ . 한국연구의 재개(再開)

현지 조사가 기본인 인류학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 가야만 한다. 따라서 종전(終戰), 패전 후 한동안 일본에서의 한국 연구는 상당히 정체되었다. 전쟁 발생 전부터 연구해 온 사람들, 특히 한국에서 귀국한 연구자들이 가지고 돌아온 자료를 이용하여 간신히 연구를 이어가고는 있었으나 새로이 연구에 참가하는 사람은 전혀 없었다. 본격적으로 연구가 재개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한국연구 재개의 제1세대로서 다음 4명을 들 수 있다.

	조사지	조사개시 시기	조사개시 당시 신분
스에나리 미치오(末成道男)	경상북도 성주	1972년	세신(聖心)여자대학강사
이토 아비토(伊藤亞人)	전라남도 진도	1972년	도쿄대학 조수
시마 무쓰히코(嶋陸典彦)	전라남도 나주	1974년	토론토대학 대학원생
스기야마 고이치(杉山晁一)	경상북도 경산	1979년	도호쿠(東北)대학 강사

조사 개시 당시의 소속은 각기 달랐지만 모두 도쿄대학 문화인류학 연구실 출신으로 장기적인 현지 조사에 근거한 본격적인 연구의 재개였다.

당시, 위와는 별도의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었다.

국제기독교대학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전통문화와 그 변용’이라는 테마로 동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 걸친 비교 연구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일환으로 연세대학교 도시개발연구소와 공동으로 한일 문화의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아오야기 기요타카(青柳清孝)와 사토 노부유키(佐藤信行) 두 사람이 약 2~3주 동안 한국 농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

였다.

히로시마(広島)대학에는 노구치 다카시(野口隆), 야기 사이치(八木佐市)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그룹이 있었다. 전쟁 발생 전과 전쟁 중에 히로시마시에는 경상남도 특히 합천군(陝川郡)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위해 동원되어 와 있었다. 그 대부분은 종전 직후에 귀국하였으나 1970년대에 도 만 명을 넘는 재일한국, 조선인들이 히로시마에 살고 있었다. 이 점에 주목한 히로시마대학 그룹은 한국에 귀국한 사람들의 한국 사회 재적응과 문화 변용에 초점을 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1972년부터 1974년에 걸쳐 10명의 연구자가 여러 차례 합천으로 건너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히로시마에서 귀국한 자들로 원폭피해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 보험 의료와 문화 변용을 담당하는 부문에 히로시마대학 원폭방사능의과학연구소의 사토 유키오(佐藤幸男) 교수와 와타나베 마사하루(渡辺正治) 조수가 같이 참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인류학 분야에서는 마루야마 고이치(丸山孝一)가 조사에 참가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서울대학교의 이두현(李杜鉉), 이광규(李光奎), 영남대학에서 김택규(金宅圭) 교수가 참가하였다(연구팀과는 별도로 히로시마의 사회가 귀국한 피폭자들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었다).

또 다케다 아키라(竹田昶)와 사쿠라이 도쿠타로(櫻井徳太郎)를 포함해 도쿄교육대학을 중심으로 한 민속학자들이 한국민속학회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상대국의 민속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민속학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 때에 비로소 타국의 문화와 민속을 연구한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전반에는 돌연 다수의 연구자들이 한국 연구에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한국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 것은 도쿄대학출신자 그룹과 도쿄교육대학그룹의 다케다 아키라뿐이었다.

Ⅲ . 도쿄대학문화인류학 연구실과 이즈미 세이치(泉靖一)

일본의 대학은 1949년 실시된 제도 개혁에 의하여 옛 체제(舊制) 대학에서 새로운 체제(新制)의 대학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때 도쿄대학에는 교양학부가 신설되었다. 발족 당시에는 전기 교양과정만을 담당하였으나, 당시 입학한 학생들이 후기 전문과정으로 진학하게 된 1951년에는 교양학과가 설치되어 4년제 학부가 완성되었다. 이 교양학부에 1954년 9월 문화인류학, 인문지리학 분과가 신설되었으며 이시다 에이치로(石田英一郎) 교수와 이즈미 세이치 조교수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 중 한국연구에 크게 관여한 이즈미 세이치의 경력을 살펴보자.

이즈미 세이치는 부친 이즈미 아키라(泉哲)가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취임하면서 1927년, 12세의 나이에 도쿄에서 경성으로 이주하게 된다. 1935년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였을 당시에는 국문학을 전공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 1월에 제주도의 한라산 등반 때 조난을 당하게 되고 동행하였던 친구 중 한 명을 잃게 되었다. 이때 친구의 수색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사회학으로 전과하여 아키바 다카시(秋葉隆)의 지도 하에 조선 연구를 하게 되었다. 1938년에 제출한 졸업논문 「제주도-사회인류학적 연구」는 지금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귀중한 민족지(民族誌)이다. 졸업하고 바로 경성제국대학의 조수가 되었고 1945년 8월에 조교수로 승진하였으나, 그 직후 종전이 되면서 경성제국대학은 해체(消滅)되었다.

도쿄로 돌아와 1948년에 메이지(明治)대학의 전임강사가 된 이즈미는 1950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도쿄에 살고 있는 제주도 출신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는 이즈미가 아직 한국 연구를 계속할 생각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대혼란의 시기였기 때

문에 충분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1951년 도쿄대학 조교수가 된 후, 1952년부터 1955년까지 2차에 걸쳐 브라질 조사를 하게 되었다. 각각 유네스코와 외무성의 의뢰를 받은 조사였으며 모두 일본인 이주자와 브라질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조사였다. 이 두 차례의 브라질 조사를 통하여 이즈미의 관심은 남미로 옮겨갔다. 한국 연구를 재개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신천지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브라질 조사를 마친 후, 이즈미는 1956년 1월부터 3월까지 브라질에서 안데스산맥을 넘어 페루까지의 남미 횡단 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일본인 실업가이자 안데스문명 연구자인 아마노 요시타로(天野芳太郎)를 만나게 되고, 안데스의 유적을 접하게 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이즈미는 안데스 고고학으로 전향하게 되었다. 1956년 8월부터 하버드대학에서 안데스 고고학을 연구한 후, 1957년 6월에 페루에서 최초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후, 1958년 2월 일본으로 귀국한 후 도쿄대학 안데스지대 학술조사단을 조직하고 1969년까지 5회에 걸쳐 안데스문명 조사를 이어갔다.

이즈미의 연구 경력은 결과적으로 한국 연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필자가 도쿄대학에 입학한 것은 1965년이었고 문화인류학의 전문과정으로 진학한 것이 1966년 후기였는데, 그 당시 이즈미 교수에 대한 인식은 안데스 고고학의 전문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당시 이즈미의 사고는 변화되고 있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1965년 6월의 한일국교정상화와 그에 따른 한일 간의 자유 왕래였다. 그 해 11월에서 12월까지 이즈미는 이시다 에이치로와 함께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이즈미는 아주 잠깐이기는 하였으나 제주도를 방문하여 지역 사회의 가족 변화 등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즈미가 다시 한국 연구로 복귀하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실은 그 조금 전부터 도쿄대학의 문화인류학 연구실과 한국 측 연구자들 사이에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후에 영남대학교 교수가 된 김택규의 유학이었다. 1961년부터 1962년 걸쳐 1년간 문화인류학 연구실의 연구생으로서 체재하였던 김택규는 학생 실습에 참가하는 등 인류학의 시점과 방법을 연구하였다.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에서 실시한 조사 연구¹⁾는 김택규의 도쿄대학 유학의 성과인 동시에 한국 문화인류학계의 금자탑이 되었다.

김택규가 도쿄대학에 유학한 것과 같은 시기인 1961년에 하와이에서 개최된 태평양과학자회의에 참가한 이시다 에이치로는 그곳에서 서울대학교의 민속학자 이두현과 만나게 된다. 이시다의 강한 권유로 이두현은 귀국 도중 도쿄대학의 이즈미 세이치를 방문하였다. 이렇게 이시다, 이즈미와 김택규, 이두현과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이다. 또 1964년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인류학민족학회에 이시다와 이즈미가 출석하였으며 여기서 이두현과 재회하게 되었다.

1966년에 이즈미는 『제주도(濟州島)』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였다.²⁾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제1부는 경성제국대학에 제출했던 졸업논문, 제2부는 1950년에 실시한 도교에 거주하는 제주도민들의 연구, 그리고 제3부는 1965년 방한 시에 김택규의 협력을 받아 실시한 제주도의 가족 조사 결과이다. 이 책은 전후 일본의 인류학에 있어서 한국 연구 재개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해인 1967년 이즈미는 다시 한국을 방문하여 이두현이 서울대 도서관에서 발견한 새로운 자료(무당내력(巫堂來歷))에 대한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1968년에는 이두현이 객원교수로 도쿄대학에 초청되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맡았다. 이때 이토 아비토가 수강하였다. 다음 해

1) 김택규, 「씨족(同族)마을의 생활구조연구」, 1964.

2)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学出版会, 1966.

인 1969년에는 한국 문교부 문화재관리국의 조사원이었던 장수근이 도쿄 대학에 1년간 체재하였으며 당시에는 스에나리 미치오와 필자가 수강하였다. 필자가 속해 있던 도쿄대학 그룹은 이렇게 한국학에 입문하게 되었다. 이즈미 교수 자신은 1970년 가을 갑작스런 죽음으로 한국 연구로 다시 복귀하지는 못하였지만 한국 측 연구자들과의 인맥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한국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2000년에 ‘한국조선문화연구회’라는 학회가 조직되었다. 인류학·민속학·사회학·역사학 등 인문사회과학 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학술적으로 한국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한 학회이다. 회원 수 약 80여 명으로 발족하였으나 현재(2014년) 200명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 중 인류학 관계자가 약 60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IV. 도호쿠대학에서의 인류학과 한국연구

도호쿠대학에서 인류학과 한국 관련 연구 교육이 시작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문학부의 부속조직으로서 ‘일본문화연구시설’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도호쿠대학 문학부 부속 일본문화연구시설

- 기초부문 1962년4월 설립
- 비교 제1부문 1963년4월 증설 (일본문화와 동양문화의 비교연구)
- 비교 제2부문 1968년4월 증설 (일본문화와 서양문화의 비교연구)
- 비교문화부문 1990년4월 증설 (외국인연구자와의 공동연구)

1963년 12월 기초 부문의 초대(初代) 교수로 이시다 에이치로 교수가

부임하였다. 당초 도쿄대학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었으나 도쿄대학을 정년퇴임한 1964년 4월부터는 도호쿠대학 전임교수가 되어 1967년 3월까지 재임하였다. 이시다의 부임으로 도호쿠대학에서의 인류학 역사가 시작되었다.

일본문화연구시설 연구 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국내외의 연구자들이 모여 다양한 공동 연구와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시다가 주최하였던 심포지엄 중 하나는 ‘일본농경문화의 기원’이라고 하는 국제 심포지엄이었다. 참가자는 아리미쓰 교이치(有光教一, 교토대학 조선고고학), 김연학(고려대학교 한국고고학), 송문훈(宋文薰, 타이완대학 타이완고고학) 교수였으며, 도호쿠대학에서는 이토 노부오(伊藤信夫, 일본고고학)와 세리자와 조스케(芹沢長介, 일본고고학) 교수가 참가하였다.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일본의 농경문화 기원을 검토하려는 기획이었다.³⁾

일본문화연구시설에 이시다가 부임한 직후, 1964년 6월에 스기야마 교이치가 조수로 부임하였다. 도쿄대학대학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인도에서 조사를 마친 직후였다. 스기야마는 1970년에 비교 제1부문의 강사가 된 후, 1973년부터 1974년에 걸쳐 태국에서 농촌 조사를 실시하는 등 연구 범위를 넓혀나갔고 나중에 한국 연구에도 참여하게 된다(후술).

도호쿠대학에서의 한국 연구는 1975년에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고대한일관계사)가 스기야마가 소속되어 있는 비교 제1부문의 제2대 교수로 부임하게 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비교 제1부문은 일본 문화와 동양 문화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 한국이라는 명칭은 들어있지 않지만 제2대 교수로 한국사 전문가를 초빙하였다(초대교수는 고대일본사연구자). 이것은 도호쿠대학이 일찍이 한국 연구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로 전후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 조선 관련 학과가 설치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3) 石田英一郎·泉靖一 編, 『日本農耕文化の起源』, 角川書店, 1968.

- 1950년 덴리(天理)대학 조선문학어학과
- 1963년 오사카외국어(大阪外國語)대학 조선어학과
- 1974년 규슈(九州)대학 사학과 조선사전공
- 1977년 도쿄외국어(東京外國語)대학 조선어학과
- 1978년 도야마(富山)대학 인문학부 조선어학문학코스
- 1989년 간다외국어(神田外國語)대학 한국어학과
- 1993년 도쿄대학 문학부 부속 문화교류시설 조선문화부문

이노우에는 부임한 다음 해인 1976년에 한국 사적(史蹟), 농촌조사여행단을 조직하고 스키야마를 포함한 문학부 교관 몇 명과 함께 2주일 정도 한국을 시찰하였다. 이때 스키야마는 영남대학교 김택규 교수의 안내로 정부 경산군의 농촌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한국농촌개관(瞥見)-사회와 종교의 제 측면」이라는 논문으로 정리하였다.⁴⁾ 참고로 스키야마는 1957년에 도쿄대학대학원에 입학하였던 터라 김택규와는 유학시절부터의 친구이다. 이 여행을 계기로 스키야마는 한국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1979년 10월부터 1년간, 영남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의 객원연구원으로 방한하여 10개월에 걸쳐 농촌 조사를 실시하였다. 스키야마는 1970년대 한국에서 본격적인 현지 조사를 실시한 몇 안 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이다.

스키야마의 한국 연구에 대한 기여는 개인적 연구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연구 체제 구축이라는 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1982년에 국립민족학박물관(오사카)의 겸임교관이 되어 제1연구부(동아시아연구부문)에 소속된 스키야마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에서 13명의 한국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공동 연구를 주최하였다. 그 성과로 간행된 『한국사회의 문화인류학(韓國社會の文化人類學)』⁵⁾은 1970년대 전반부터 재

4) 杉山晃一, 「韓國農村瞥見—社會と宗教の諸側面」,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第15集, 109-127쪽.

5) 杉山晃一·桜井 哲男 編, 『韓國社會の文化人類學』, 弘文堂, 1990.

개된 연구가 약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진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스기야마가 주최한 공동 연구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실시한 한국 관련 공동 연구로서는 실은 2번째 연구였다. 하지만 제1회(1980~1982년, 그후에 다카오(祖父江孝男) 주최)연구는 일본 국내의 어느 연구 기관에서 누가 한국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스기야마가 주최한 제2회가 본격적인 한국 연구의 기원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뒤를 이어 1985년에 겸임교관이 된 필자(당시 히로시마대학)가 주최하여 제3회(1989~1992년), 제4회(1994~1996년) 공동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993년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⁶⁾ 당시 국립민족학박물관에는 한국 연구 관련 전임교관이 없었던 상황 하에서 겸임교관인 스기야마와 필자가 중심이 되어 한국 연구를 추진하였던 것이다.

1993년에 도호쿠대학 문학부의 조직 개편으로 문화인류학 강좌가 정식으로 신설되어 스기야마가 초대 교수가 되었다. 한편 그때까지 스기야마가 소속되어 있던 일본문화연구시설은 1996년에 문학부에서 독립하여 '동북아시아연구센터'라고 하는 대학 조직으로 크게 확장되었다. 현재 기초 연구 부문의 하나로 일본·한반도 연구 분야가 개설되어 있다.

문화인류학 강좌는 1996년에 퇴임한 스기야마의 후임으로 필자가 부임하여 문화인류학과 함께 한국 연구를 이어가게 되었다. 이후 2000년에는 교육학 연구과에 이인자 교수가 부임하게 되면서 한국 연구는 더욱 확장되었다.

도호쿠대학 문학부와 한국 측 인류학자와의 관계는 1979년 봄에 김택규 교수가 방문하여 스기야마와 함께 센다이(仙台)시 교외 농촌에서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 교류의 본격화가 이

6) Mutsuhiko Shima & Roger L. Janeli (eds), *The Anthropology of Korea: East Asian Perspectives*,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1998.

루어졌다. 김택규 교수는 1990년대 초에도 도호쿠대학을 단기 방문하는 등 연구 교류를 지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자료 미확인). 2000년 9월부터 1년간 유명기(경북대학교) 교수가 방문하여 미야기현 도매군(宮城県登米郡)에서 농촌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 교수는 1974년에 필자가 한국에서 조사를 시작했을 당시부터의 지인이다.

V. 결론

이시다 에이치로에 의해 동아시아적 시야가 도입된 이후의 도호쿠대학의 한국관련 연구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시다 에이치로(石田英一郎)	문화인류학	1963년12월 ~ 1967년 3월
스기야마 고이치(杉山晃一)	문화인류학	1964년 6월 ~ 1996년 3월 (한국연구는 1976년~)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	역사학	1975년 4월 ~ 1988년 3월
시마 무쓰히코(嶋陸奥彦)	문화인류학	1996년 4월 ~ 2010년 3월
이인자(李仁子)	문화인류학	2000년 4월 ~

이상 모두 한국 연구에 특정되거나 소속된 연구자들은 아니지만 장기간에 걸쳐 한국 연구가 이어져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인류학과 관련하여 2014년 12월 현재 도호쿠대학 전체에서 전임 교원 수는 6명이다. 소속과 전문 지역은 다음과 같다.

문화연구과	누마자키 이치로(沼崎一郎) - 대만, 일본
	가와구치 유키히로(川口幸大) - 중국

교육학연구과	이인자 - 동아시아
국제문화연구과	요시다 시게토(吉田栄人) - 중미
동북아시아연구센터	세가와 마사히사(瀬川昌久) - 중국
	다카쿠라 히로키(高倉浩樹) - 동북아시아

한 대학에서 인류학자가 6명이라는 것은 매우 많은 인원이다. 국립 민족학박물관을 예외로 하더라도 일본 국내에서 이보다 많은 곳은 도쿄 대학뿐이다(총합문화연구과 초역문화과학전공 문화인류학분야 7명, 지역 문화 전공 1명, 동양문화연구소 1명). 그 다음이 슈토대학도쿄(首都大学東京)의 사회인류학 연구 분야와 교토분교대학(京都文教大学) 문화인류학 연구과로, 두 곳 모두 6인 체제이다. 이에 비해 도호쿠대학의 경우는 소속이 4개 연구과 및 센터에 분산되어 있어 두드러지지는 않으나 6명 중 5명이 동아시아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다른 대학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문화연구과의 문화인류학 전공 분야에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연구센터’는 명실상부 동아시아·동북아시아가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학 연구과의 이인자 교수가 참여하게 되면서 동아시아 전문 인류학자는 5인 체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연구 체제 속에서 향후에도 한국 연구의 등불이 계승되고 더욱 발전되어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日本空間

번역: 강은정(조치대학 신문학과)

참고문헌

- 김택규, 「씨족(同族)마을의 생활구조연구」, 1964.
石田英一郎·泉靖一 編, 『日本農耕文化の起源』, 角川書店, 1968.
泉靖一, 『濟州島』, 東京大学出版会, 1966.
杉山晃一, 「韓国農村瞥見—社会と宗教の諸側面」, 『日本文化研究所研究報告』
第15集.
杉山晃一·桜井 哲男 編, 『韓国社会の文化人類学』, 弘文堂, 1990.
- Mutsuhiko Shima & Roger L. Janeli (eds), *The Anthropology of Korea: East Asian Perspectives*,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1998.